

올 겨울 극장가 강타... '빅3' 영화 대전

◇ 저승 재판, 당신의 삶을 돌아볼 것... 신과 함께

◇ 비극을 성취로 바꿔나간 힘... 1987년

◇ 단순한 첩보액션영화가 아니다... 강철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연말에도 이른바 '빅3'가 관객몰이에 나선다. 올해 영화시장은 '빅3' 맞대결로 펼쳐졌다. 여름에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청년경찰'이, 추석에는 '남한산성' '킹스맨:골든 서클' '범죄도시'가 맞붙었다.

이번 겨울에는 웹툰이 원작인 판타지 '신과 함께'가 진을 치고 있고, 압축했던 한 시대를 뒤엎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1987년 사람들이 물려온다. 또 우리나라 외교·안보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첩보액션물 '강철비'도 준비태세를 갖췄다.

'빅3'라 불릴만한 공통점은 한국 영화계의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이다. 이정우·정우성·김윤석·곽도원·차태현·이정재·주지훈·이희준·유해진·김태리 등 총무로 블루칩들이 한판 승부를 치른다.

◇ 저승 재판, 당신의 삶을 돌아볼 것... 신과 함께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한 아이를 구하고 숨을 거둔다. 자신의 죽음을 멍하게 바라보던 그의 영혼은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마주한다. 바로 저승차사. 소방관은 이제 저승차사들과 함께 저승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 어떤 재판 이냐고? 바로 인생 재판이다.

영화 '신과 함께'(감독 김용화)는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2010년부터

2년 간 포털 사이트에 연재한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이 작품은 웹툰 전성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오락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춰 웹툰계 걸작으로 꼽힌다. '미녀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를 만들며 흥행 감독 반열에 오른 김용화 감독이 이 독특한 소재 만화를 영화화했다.

총 제작비만 400억원, 한국영화로는 최대 규모다. 원작의 방대한 분량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해 1, 2편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한 번에 촬영한 두 편의 영화가 다른 시기에 개봉하는 건 '신과 함께'가 처음이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작품답게 이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마동석·김동욱·도경수·오달수·임원희·장광·이정재·김수안·이준혁·김해숙·이경영·김하늘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저승세계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한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내 삶과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본다'는 식의 인간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조화될지도 관심거리다. 12월 20일 개봉.

◇ 비극을 성취로 바꿔나간 힘, 1987년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던 서울대 학생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한다. 이른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이 일은 19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외연 확장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다.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통해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검사가 있었고,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인이 있었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시민이 있었다. 이정우·김윤석·유해진·김태리·박희순·이희준·여진구·설경구·강동원, 이 작품이 가진 의미에 동참한 배우들이다. 12월 중 개봉.

◇ 단순한 첩보액션영화가 아니다 '강철비'



'강철비'(감독 양우석)는 북한 최정예 요원 엄철우(정우성)와 남한 외교안보수석 박철우(곽도원)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액션스릴러물이다. 남한 정

권 교체가,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쿠데타가 발생하자 엄철우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를 데리고 비밀리에 남한으로 내려온다.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에 남한에는 계엄령이 선포된다.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직전, 박철우는 엄철우가 북한 VIP를 보호하며 남한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접촉에 나선다.

2013년 데뷔작 '변호인'을 1000만 영화로 만든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다. 양 감독의 영화 세계가 확장됐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 영화가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을 둘러싼 위급한 외교·안보 상황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양 감독은 강변한다.

'변호인'의 성공을 함께했던 곽도원이 다시 한번 양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북한군이 된 정우성은 어떤 모습인지 기대를 모으고, 김강수·김의성·조우진·이경영·정원준·김명곤 등 최고 연기력을 가진 조연진이 영화의 사실감을 극대화한다. 12월 20일 개봉. /뉴시스

FA 권오준, 2년 총액 6억원에 삼성 남는다

“유니폼 더 입을 수 있어 구단에 감사” 소감 밝혀

프로 생활 19년차에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를 맞이한 권오준(37)이 계속해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는다.

삼성에는 17일 FA 권오준과 계약기간 2년, 총액 6억원(계약금 2억원·연봉 1억5000만원·옵션 최대 1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린인터넷고를 졸업하고 1999년 삼성에 입단한 권오준은 삼성에서 20년 넘게 뛰게 됐다.

입단 이후 팔꿈치 부상과 군 복무 등으로 2003년 1군에 데뷔한 권오준은 중간과 마무리를 가리지 않고 14 시즌 동안 486경기에 등판, 627이닝을 소화하며 31승 22패 23세이브 82홀드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했다.

세 차례나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권오준은 매년 힘겨운 재활을 이겨내고 1군 무대로 돌아오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2005년 46경기에서 63이닝을 소화하며 17세이브(3승 1패 1홀드), 평균자

책점 2.29의 뛰어난 성적을 거둔 권오준은 이듬 해 67경기에서 80이닝을 던지며 32홀드(9승 1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삼성의 든든한 셋업맨으로 활약했다.

권오준은 올 시즌 45경기에 등판해 56이닝을 던지면서 1승 2패 1홀드 평균자책점 5.14를 기록, 묵묵히 삼성 불펜의 마당쇠 노릇을 했다.

삼성 구단은 “지난 19년간 그라운드 안팎에서 권오준이 보여준 투지와 공헌도, 베테랑으로서 영향력을 고려했다”며 “권오준이 영원히 '삼성맨'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감해왔고, FA 계약에 이르렀다고 계약 이유를 설명했다.

권오준은 “지금까지 19년간 입었던 삼성 유니폼을 2년 더 입을 수 있게 됐다. 구단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구단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좋은 성적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배들과 함께 최고의 야구장에서 예전



의 영광을 편들게 다시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파이팅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인순이,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탈세 혐의로 국제정보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정보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

국제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

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한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원이 넘는다.

‘여성폭행 의혹’ 강인 “물의 죄송...”

술에 취한 채 여성을 때렸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사과했다.

17일 강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S레이블은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시 강인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와 다툼이 있던 중 오해를 빚어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다”면

서 “상대방에게 사과했고, 현장에서 원만히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중인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이날 오전 4시30분경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의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인순이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했으나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피한 셈이다.

분당세무서는 새롭게 드러난 인순이의 탈루액까지 빠짐없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순이 측과 연락이 닿지 아직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순이는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뉴시스

치 않는다고 밝혀 강인을 훈방조치했다. 앞서 강인은 수차례 물의를 일으켜 자숙 중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발매된 슈퍼주니어 정규 8집 '플래시' 활동에서도 일찌감치 빠졌다. 그는 모범생 이미지가 강한 아이돌이 모인 SM에서 유독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2009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해와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